

제주도 본풀이와 놀이의 상관성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을 중심으로

김은희*

<차례>

- I. 서론
- II. 제주도 굿의 본풀이와 굿놀이
 1. 제주도 본풀이의 종류와 그 구송 형태
 2. 제주도 굿놀이의 종류와 내용
- III. 제주도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
 1.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
 2.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유형
- IV. 앞으로의 과제: 풀이와 놀이 연계의 특수성과 보편성

국문요약

제주도 굿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이들은 풀이·맞이·놀이의 세 구성소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본풀이와 놀이는 굿에서 실제로 상호연계를 가지면서 연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둘의 연계방식에 대한 정리와 이해를 통해서 실제 굿에서의 기능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본풀이와 놀이에 대해서 일괄적인 정리와 이를 통해서 정리된 각 본풀이와 놀이가 연계를 갖는 방식과 그 기능에 대한 이해가 시도되었다.

먼저 제주도에서 구송되고 있는 일반신본풀이를 비롯한 17종의 본풀이를 굿에서 본풀이의 위치와 구송방식을 중심으로 정리된다. 이를 통해서 본풀이들은 각각 독립된 절차로 구송형태·일정한 절차의 일부이면서 독립성을 가진 형태·의례의 일부이면서 의례의 근거를 제시하는 장치의 형태 등 세 가지의 구

* 고려대학교 인문대학원 응용언어문화학협동과정 박사 수료

송 형태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주도의 굿놀이 13종을 큰굿에서 연행되는 것과 특별한 목적의 독립제사에서 연행되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들 굿놀이 중 일부는 본풀이의 세 번째 구송형태에 속하는 본풀이와 심각한 연계양상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러 본풀이와 굿놀이들 중에서 특히 실제 굿에서 풀이와 놀이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것, 풀이와 놀이의 주인공이 동일한 것,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연계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총 7가지의 본풀이(이공·구삼승할망·생불할망·삼공·세경·칠성·선앙)와 8가지의 굿놀이(악심꽃 꺾음·수룩침·꽃타러들 꽃풀이·구삼성냄·전상놀이·세경놀이·영감놀이)가 서로 연계되어 있고, 이들의 연계가 가)독립형·나)병렬형·다)일체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는데, 이러한 유형은 본풀이에 등장하는 주인공 또는 서사적 전개상황을 굿놀이에서 어떻게 연행되고 전달하는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은 최종적으로 가)독립형은 성속의 합일을 꿈꾸는 세계관의 표방이며, 나)병렬형은 신과 인간이 서로 불가침하는 가운데 조화로움을 꿈꾸는 성속분리의 세계관을, 다)일체형은 성과 속의 상호공존을 꾀하는 세계관이 담겨있다.

이처럼 굿의 연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성소인 본풀이와 놀이는 각각의 독립된 구성소로서 일정한 가치를 가지면서, 동시에 연계를 통해서 신과 인간의 세계를 적절하게 조절시키는 장치로서 또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접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제주도 본풀이, 제주도 굿놀이, 풀이와 놀이, 연계양상, 연계유형

I. 서론

우리나라 굿에서 맞이와 본풀이, 그리고 굿놀이는 굿의 현상적 이해와 의례의 절차를 짚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굿의 구성소들이라

고 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곳 중에서 특히 제주도 곳은 이러한 구성소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맛이, 풀이, 놀이를 통한 곳의 이해를 다각도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다. 일찍이 김영돈과 현용준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에서 제주도의 의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구성소로서 풀이, 맛이, 놀이를 정리한 바 있다.¹⁾ 즉, 제주도의 무속의례를 언어표출(신화) 위주의 의례인 ‘본풀이’, 무용표출 위주의 의례인 ‘맛이’, 극적 행동표출 위주의 의례인 ‘놀이’라고 정리한 것이 그것이다.

제주도 곳의 구성소에 대한 이 같은 정리는 제주도 곳을 뜯어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곳을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이는 곳을 순차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는 독립된 절차의 일부를 통해서만 이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단위에 따라서 의미를 분절함으로써 곳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즉 구성소라는 단위의 등장으로 인해서 단위에 따라서 제주도 곳을 새롭게 헤쳐모여 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구성소 간의 독립성과 상호관련성에 관한 다양한 시각의 전개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실상 제주도 곳에서 세 구성소들은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다 하기도 하지만, 서로 다양한 형태의 연계를 가지면서 곳 안에서 상관성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각 구성소들 간의 연계 또는 상관성에 대한 분석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라고 짐작된다. 그러나 일찍이 세 구성소에 대해서 정리된 것에 비해서 제주도 곳에 대한 연구사에서 이러한 구성소들 간의 연계 또는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 세 구성소에 대한 연구 방향은 각각의 구성소 단위

1) 김영돈·현용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문화재관리국, 1965), 5쪽.

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성과들은 각각 독립된 곳의 구성소 단위로서의 현상 또는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현용준·장주근 등의 연구를 위시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본풀이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성과를 남겼다.²⁾ 본풀이 다음으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구성소가 굿놀이일 것이다. 실제로 현용준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에서 세경놀이와 영감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한³⁾ 이래로, 특히 문무병이 오랜 현장조사를 통해서 제주도 굿에서 진행되는 놀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결과를 얻었다⁴⁾.

그러나 실상 이들 연구와 함께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주도 굿을 더욱 깊이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소들의 관계, 또는 연계된 구성소들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 실제 제주도의 굿에서 확인되는 구성소들의 관계는 맞이-풀이, 맞이-놀이, 풀이-놀이, 맞이-풀이-놀이 등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본풀이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굿에서 본풀이의 기능을 중심으로 제주도 굿의 특징 또는 의례적 행위를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⁵⁾

2) 두 연구자의 여러 업적 중 장주근,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과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3) 김영돈·현용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문화재관리국, 1965).

4) 문무병의 『제주 민속극: 종이탈굿놀이본, 심방굿놀이본』(도서출판 각, 2003)에 15개에 달하는 굿놀이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5) 현용준, “제주도 무속의례연구”, 『논문집』제17집(제주대학교, 1975).

현용준, 『제주도 무속연구』(집문당, 1986).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현용준, “한국신화와 제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문무병, “제주도 무조신화와 신굿”, 『비교문화연구』5(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99).

아직 맛이 또는 풀이와 놀이 간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 또한 극히 드물게 확인될 따름이어서,⁶⁾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가장 많이 연구성과를 거둔 본풀이 구성소와 다른 구성소와의 연계를 통한 연구가 제주도 굿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더 빠른 지름길임을 인식하고, 본풀이와 놀이의 연계와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맛이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과 달리 놀이는 독립성이 분명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고, 더욱이 풀이와 직접적인 연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많으므로 함께 다루어볼만하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연구가 현용준⁷⁾에 의해서 일찍이 시작되었으나, 이후 몇몇 연구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현용준이 정리한 “맛이굿에서 본풀이를 노래하거나 그 내용의 의례적인 행위 연출은 의례 행위의 신화적 근거를 댄으로써 의례의 정당성을 보증하고, 신화적 사실을 현실에 재연하여 원고적(原古的) 질서으로 회귀(回歸)·갱신(更新)시키는 의미

김현선, “제주도 <초공본풀이>의 영웅신화적 면모: 구조 분석, 입무의례, 신화적 성격 규명을 중심으로,” 『세계의 영웅신화』(신화아카데미, 2002).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 조만호, “제주도 ‘무당굿놀이’의 민속학적 접근”(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김현선, “‘맛이’로 다시 보는 우리 신화,” 『경기어문학』제10집(경기대학교 어문학회, 2006).

김현선, “제주도 굿의 구조와 원리,” 『한국무속학』제14집(한국무속학회, 2007).

김은희,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불도맛이〉의 굿놀이 연행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제14집(한국무속학회, 2007).

7) 현용준,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5(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8), 7~28쪽.

현용준, “한국신화와 제의,”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가 있다.”는 의견을 넘어서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더욱 다양한 풀이와 놀이의 관계에 대해서 해명함으로써 개수치를 높여서 사례를 더욱 보강하며, 풀이와 놀이의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로서 본고의 목적을 삼을 수 있겠다.

풀이와 놀이가 제주도 굿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양하다. 이 중 특히 풀이와 놀이가 상호 연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분석의 중심에 놓고, 둘의 연계가 굿에서 어떠한 기능을 발현하기 위한 장치인지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제주도 굿의 이해와 분석을 위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굿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II. 제주도 굿의 본풀이와 굿놀이

제주도의 굿에서 본풀이와 굿놀이는 매우 주요한 구성소이면서 동시에 연행단위이다. 제주도 굿의 두 구성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분명한 연행적 특성을 나타낸다. 본풀이는 신의 본을 풀어내는 것으로 제주도 굿에서 독자적인 면모를 띤다. 본풀이는 신의 내력과 신의 좌정과정을 풀어내면서 제주도 굿에서 모셔지는 신들에 대한 종교적 원천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굿놀이 역시 매우 독자적인 연행양상을 드러내는 것으로써 주목된다. 즉 신들을 모셔서 의례를 진행하는 신성한 굿판에서 신 또는 신을 대신해서 등장한 인물들이 일정한 상황을 연출하고, 인물을 분할하여 극적(劇的)인 판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본풀이가 신의 내력을 통해서 종교적인 신성성을 드러내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례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처럼 다른 본풀이와

굿놀이의 두 구성소가 제주도의 굿에서는 일정한 상호연관성을 지니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목된다. 실질적으로 제주도 굿에서 본풀이와 굿놀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실상을 통해서 두 구성소의 독자적 사실과 상호연관성 속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 제주도 본풀이의 종류와 그 구송 형태

먼저 본풀이를 살펴보면, 제주도의 굿에서 확인되는 본풀이의 종류와 놀이와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다양한 본풀이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본풀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타 지역의 경우 본풀이를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과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이나 경기도·전라도 지역의 굿에서 본풀이가 셋 이상 확인하기 어려우며⁸⁾, 황해도 굿에는 구체적인 본풀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본풀이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인 동해안 지역의 경우 제석본풀이의 5가지, 함경도에서 7가지 정도가 발견되고 있을 따름이다.⁹⁾ 이에 비하면 제주도의 본풀이가 수적으로도 우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본풀이가 구송되고 있다.

제주도 굿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들은 굿의 시작부터 끝에 이르는 여러 제차 중 특정한 절차 또는 적절한 시간에 분배되어서 다양한 방식의 연행형태를 나타낸다. 심방이 일정한 굿의 절차를 연행하면서, 반드시 본

8) 본풀이가 적게 발견되는 지역의 본풀이로 서울 굿의 바리공주 말미·황제풀이, 경기도의 제석본풀이·성주풀이, 전라도의 제석본풀이·오구풀이·장자풀이 등이 있다.

9) 동해안 굿의 본풀이로는 제석본풀이(세존굿)·성주본·손님풀이·걸립본·심청본이 있으며, 함경도에는 오기풀이·감천·짐달언 장수·붉은선비 영산각시·도량선비 청정각시·양산백 축원대·짐가재 등이 있다.

풀이를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본풀이를 구송하거나 적절한 절차에서 몇 개의 본풀이를 연이어서 구송하기도 한다. 본풀이를 구송할 때는 앉아서 말미장귀를 스스로 치면서 장단을 맞추면서 신의 본을 푸는 기본적인 구송방식에서부터, 앉아서 요령을 흔들면서 풀기, 서서 요령을 흔들면서 풀기, 소미들의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 부르며 풀기 등 각 본풀이에 따라서 그 구송방식을 달리하면서 나타난다.

본풀이가 구송되는 양상을 연행위치와 구송방식에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¹⁰⁾ 실제의 굿에서 본풀이가 드러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굿의 연행절차 속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지를 따지고, 더불어서 실질적인 구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따져서 각각의 본풀이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제주도의 굿에서 나타나는 본풀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큰굿과 죽은굿, 또는 당굿 등 제주도에서 행해지는 어떤 종류의 굿에서든 그 목적에 합당한 신을 모시고 의례를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본풀이 구송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범박하게나마 다시 한 번 확인된다.

10)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도서출판 각, 2007)에 정리된 본풀이의 종류와 연행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별도의 독립된 굿에서 연행되는 성주풀이를 제외한 다른 본풀이들은 큰굿에서 실제 연행되는 본풀이들이다. 구송방식은 현용준의 자료를 근간으로 한 것이며, 2006.12.26~2007.01.06의 서순실 삼방 대역례굿의 현장 조사시 확인된 것을 참고하여 구송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제주도 곳에 나타나는 본풀이의 종류 및 구송방식

본풀이	본풀이의 위치	구송방식
1 천지왕본풀이	큰굿. [초감제]의 베포도업침 중.	큰굿: 서서, 요령. 족은굿 외 : 앉아서, 장귀(자장단).
2 초공본풀이	큰굿. [초공본풀이], [초공맞이]의 초공질침 중. 신굿. [당주맞이]의 고분맹두 중.	[초공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 (자장단). [초공맞이] · [당주맞이] : 서서, 요령 · 신칼.
3 이공본풀이	큰굿. [이공본풀이], [불도맞이]의 수레멜망악 심뿔질침 · 악심꽃꺾음 중.	[이공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 (자장단). [불도맞이]: 서서, 악심꽃, 반복장.
4 삼공본풀이	큰굿. [삼공본풀이], [삼공맞이]의 전상놀이 중.	[삼공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 (자장단). [삼공맞이]: 앉아서, 덕담장구(반 주).
5 삼승할망본풀이 (생불 · 구삼싱)	큰굿. [불도맞이]의 할망질침 중. 족은굿. [구삼싱 냄] · [마누라 배 송]의 할마님께 비님 중.	[불도맞이]: 서서, 요령 · 신칼. [구삼싱 냄] · [마누라 배송] : 앉아서.
6 마누라본풀이	큰굿. [불도맞이]의 할망질침 중. 비님. [구삼싱 냄] · [마누라 배 송]의 할마님께 비님 중.	[불도맞이]: 서서, 요령 · 신칼. [구삼싱 냄] · [마누라 배송] : 앉아서.
7 세경본풀이	큰굿. [세경본풀이]	[세경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 (자장단)
8 칠성본풀이	큰굿. [칠성본풀이], 족은굿. [칠성새님]의 칠성본풀이.	[칠성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 (자장단) [칠성본풀이]: 불분명.
9 체사본풀이	큰굿. [시왕맞이] 중 체사본풀이.	[시왕맞이]: 앉아서, 말미장귀(자 장단)
10 스만이본풀이	큰굿. [액막이] 중 스만이본풀이.	[액막이]: 무릎 꿇고 앉아서, 요령.
11 지장본풀이	큰굿. [초감제] 외의 새드림, [시왕맞이]의 나까도전침 중.	[초감제] · [시왕맞이] : 서서, 요령 · 신칼.
12 문전본풀이	큰굿. [문전본풀이]	[문전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 (자장단).
13 균웅본풀이	큰굿. [석살림] 중 균웅본판.	[석살림]: 서서, 덕담장구(반주), 노래.

14	조상본풀이	큰굿. [석살림] 중 조상본풀이,	[석살림]: 서서, 덕담장구(반주), 노래.
15	선양참봉본풀이	큰굿. [석살림] 중 선양참봉본풀이. 죽은굿, 당굿-영등굿. [영감놀이] 중.	[석살림]: 서서, 자진모리(반주), 노래. [영감놀이]: 서서, 자진모리(반주), 노래.
16	성주풀이	성주풀이. [성주풀이].	[성주풀이]: 서서, 덕담장구(반주), 노래.
17	당신본풀이	큰굿. 당굿. [분향드리] 중 분향본풀이.	[당신본풀이]: 앉아서, 말미장귀(자장단).

이렇게 정리된 본풀이들을 다시 곳에서 본풀이의 위치와 구송방식에 입각하여 재편성하면 다음의 세 가지의 구송 형태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독립된 절차로서 본풀이를 구송하는 형태로, 이 본풀이들은 하나의 독립된 굿거리로서 분절된다. 이러한 형태의 본풀이로 2.초공본풀이 외에, 3.이공본풀이, 4.삼공본풀이, 7.세경본풀이, 8.칠성본풀이, 12.문전본풀이 등이다. 또한, 이 본풀이들은 모두 심방이 앉아서 말미장귀를 치면서 자장단에 맞추면서 풀이를 구송한다는 점과 장편서사시라는 점에서 모두 공통점이 있다. 모두 본풀이 구송이라는 행위 그 자체 또는 신의 본풀이를 풀어서 신의 내력을 밝히고, 신의 위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작업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라고 짐작된다. 구체적으로 초공본풀이는 『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연유닭음-들어가는 말미-공시풀이-본풀이-공시풀이-주잔넘김-비넘-산받아분부사뵈-다음 제차로 넘김』의 절차를 거치면서 연행되면서, 본풀이 그 자체의 구송이 절차의 중심에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11)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 126~150쪽에 정리된 초공본풀이의 연행단락을 옮긴 것이며, 초공맞이에서 초공본풀이가 구송되지 않는 것은 151~156쪽을

두 번째, 이러한 본풀이들과 달리 본풀이가 일정한 규모를 가진 연행 단락의 일부에 해당하는 절차로서, 부분적인 독립성을 가진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본풀이들은 곳에서 연행되는 여러 곳거리의 절차 중에서의례적으로 특정한 제차와의 연계성을 담보한다. 즉 본풀이 구송은 일정정도 규모가 큰 연행단락에서 독립성을 가지면서 세부 절차의 일환으로 연행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 1>의 8. 칠성새남 중의 칠성본풀이, 9. 시왕맞이 중의 체사본풀이, 10. 액막이 중의 스만이본풀이, 13·14·15의 석살림 중의 군웅본판·조상본풀이·선양참봉본풀이, 16. 성주풀이굿 중의 성주풀이, 17. 본향드리 중의 본향본풀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칠성새남, 시왕맞이, 액막이, 석살림, 본향드리 등의 일정한 규모를 가진 연행절차의 부속 연행 단위로서 본풀이가 구송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본풀이들이 이처럼 일정한 규모의 연행절차 속에서 부속 연행 단위이지만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본풀이가 각 연행단락 속에서 의례의 종교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이들 본풀이들 중 장형서사시인 본풀이들 역시 첫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앉아서 말미장귀의 반주에 맞추어서 본을 푸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서 선후에 연행되는 세부절차에 이어서 순차적으로 구송된다. 예를 들어서 본향드리의 경우 『베포도업침-날과 국 섬김-집안연유닭음-군문열림-산밭아 분부사름-새드림-신청례-엄복지주잔-산받음-본주 절시키고 도숙여 소지 사름-본향당신본풀이(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연유닭음-들어가는 말미-본풀이-주잔넘김-비념-산밭아 분부사름-다음 제차로 넘김)-돌려세움-각기도하전시킴』의 절차¹²⁾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2)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 347~349쪽에 정리된 세부 연행단락을 옮긴 것이다.

본향당신을 모셨다가, 다시 보내드리는 절차의 일환으로서 본풀이가 구송된다. 이들과 달리 13·14·15의 본풀이들과 16의 성주풀이는 모두 석살림에서 불러지는 노래들로, 본풀이들은 일정한 순차적인 질서를 가지면서 점차 장단을 빠르게 하면서 부른다. 느린 곡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빨라지면서 신과 사람들을 놀게 하는 데 더 주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불러진다.

셋째는 본풀이가 의례의 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의례의 근거를 제시하는 장치로서 구송되는 형태이다. 1. 초감제의 천지왕본풀이, 2. 초공맞이·당주맞이의 고분명두 중에 구송하는 초공본풀이¹³⁾, 3. 불도맞이의 수레멜망악심꽃짐침·악심꽃꺼움 중에 구송하는 이공본풀이, 4. 삼공맞이의 전상놀이를 하면서 구송되는 삼공본풀이, 5·6. 불도맞이의 할망질침과 구삼심 냄·마누라 배송에서 할마님께 비넌하면서 구송하는 삼송할망본풀이·마누라본풀이, 11. 초감제·시왕맞이의 새드림 중의 지장본풀이, 15. 죽은곳·영등곳의 마지막에 배방선을 하러 가기 전에 영감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선양참봉본풀이로 다수의 본풀이가 이러한 형태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본풀이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천지왕본풀이는 굿의 처음 시작인 초감제의 『베포도업침-날과 국섬김-집안연유 닦음-군문열림-새드림-젯드리얏혀 살러움-정데우-다음제차로 넘김』의 진행과정¹⁴⁾ 중 베포도업침에서 천지혼합으로 하늘과 땅이 ‘굽’ 갈라져서 개벽시 도업에 이르는 여러 제차에 이어서 선우성별과 월일광 도업에 이르러서 구송된다. 구체적으로 천지왕과 수명장자의

13) 문봉순의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 51~52쪽에 정리된 당주맞이의 절차를 참고한 것이다.

14)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 39~67쪽에 정리된 세부 연행단락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대립, 대별왕과 소별왕의 갈등과 수수께끼와 꽃피우기 경쟁으로 저승·이승차지하기 등 해와 달의 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구송된다. 즉 천지왕본풀이가 곧 무속의 신성한 세계를 보증하는 체적력서 작용하고, 곧 현실과 신화적공간이 만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함을 알게 된다. 세 번째 형태의 풀이들은 천지왕본풀이와 같이 대체로 맞이¹⁵⁾ 단위에 배방선을 속에서 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과 인간정까쓱계를 일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전에 구체적으로 의례에서 나타나는 행위 또는 상황의 전거력서 기능한다. 따라서 존서 개벽시 도의례의 진행과정 중에 구송되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형태와 같이 앉아서 구송하지 않고 대개 서서 구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같이 제주도의 굿 안에서 확인되는 본풀이의 형태를 셋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박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진행환경이 곧 본풀이와 놀이간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제주도 굿놀이의 종류와 내용

본풀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굿놀이들을 정리하여 함께 관련지어서 분석해 볼 수 있으므로, 제주도의 굿에서 확인되는 굿놀이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제주도 굿의 여러 절차 중에서 특별히 놀이로 분류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은 현용준이 “극적 행동표출 위주의 의례”라고 정

15) 이하에서 지적하고 있는 ‘맞이’는 모두 실제 제주도 굿의 연행절차에서 등장하는 연행단위의 명칭으로, 예를 들어서 초감제, 초신맞이, 불도맞이, 일월맞이, 초공맞이, 이공맞이, 삼공맞이, 요왕맞이, 시왕맞이 등과 같이 부속거리가 아닌 대규모의 연행 단위를 말한다.

리한 것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굿놀이가 의례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극적 행동표출을 위주로 한다고 함은 심방이 굿을 진행하면서 발화와 수신의 방식의 독자성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심방이 굿을 할 때 한 굿거리 또는 절차 내에서 ‘신←심방←본주’ 또는 ‘신→심방→본주’로 발화와 수신이 편도의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굿놀이는 1인 또는 둘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다채널 또는 양방향 발화하고 수신을 하면서 굿을 진행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양방향 발화·수신의 방식으로서 재담이나 대화체의 말들이 오고가면서 굿이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굿놀이는 연행을 하고 있는 심방 한 사람이 혼자서 연행하는 경우보다 둘 또는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극적으로 연행하게 된다. 여러 사람의 참여로 인해서 굿놀이는 일인 다역극, 다인다역극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연행자가 된다.

또한 이들이 나누는 대화에 사용하는 어휘는 신성하고 고차원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본풀이가 신들을 위해서 또는 신의 일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이 신성한 세상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대체로 중세의 언어를 통해서 발화하는 점과 다른 것이다. 즉 굿놀이에 사용되는 어휘는 일반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을 그대로 사용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근대나 현대의 용어, 또는 근현대적 인물캐릭터가 표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갖춘 것들을 제주도 굿에서 확인하면 굿놀이 역시 본풀이에 비견할 만큼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들은 각각 굿의 각 절차 속에서 각기 그 의미를 달리하면서 독자적인 위치와 연행내용을

통해서 존재한다. 곳에서 진행되는 굿놀이를 찾아서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¹⁶⁾

<표 2> 제주도 굿에 나타나는 굿놀이의 종류와 연행내용

굿놀이	굿놀이의 위치	연행내용
1 죄목죄상 · 도지마을굿	큰굿. [보세갑상]의 신매움 뒤에 죄목죄상.	- 천양강삼관을 압송하여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은 죄가 풀리도록 삼천전제석궁 앞에서 만당 가득 올림.
2 수룩침	큰굿. [불도맞이]의 추물공연 뒤에 수룩침.	- 바람을 들고 권계를 받아서 올리는 과정으로, 갯 북제맞이굿으로 이어감.
3 악심꽃 꺾기	큰굿. [불도맞이]의 할망질침 뒤에 악심꽃 꺾음.	- 수레멜망악심꽃집을 치고, 가족에게 생긴 병이나 나쁜 마음을 없애는 악심꽃을 꺾는다. 이때 이공본풀이를 악심꽃 꺾음의 앞 또는 뒤에 풀어서 악심꽃의 근본을 말한다. ¹⁷⁾
4 꽃 타러 댘 · 꽃풀이	큰굿. [불도맞이]의 악심꽃격음 뒤에 새드림 뒤에 꽃 타러 댘 · 꽃풀이.	- 서천꽃밭에 들어가서 가지꽃을 훔쳐 오고, 꽃가지지를 통해서 가족들의 명과 복을 점쳐서 풀이함.
5 용놀이 (갈롱머리)	큰굿. [제오상계]의 신매움 뒤에.	- 전상베로 심방 몸을 묶고, 고리동반을 들어 굿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스룩'을 풀기 위해 오메기떡을 만들어 술을 담궈서 신전에 올리고, 몸이 온 데 있는 전상을 풀이내기 위해 전상 새드림을 한 후 전상베를 풀어 놓는다. 모든 죄를 갈롱에게 씌어서 용을 잡아들임.
6 세경놀이	큰굿. [양궁속입]을 마친 후에.	- 한 여인이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아이(앵돌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농사의 각 과정을 거쳐서 집안 가득 곡식을 거둬들이게 됨. 이때 씨를 뿌리면서 씨집을 봄.

16) 이들은 큰굿 또는 특별목적 의례로서 진행되는 죽은굿 또는 비뉘에서 진행되는 굿놀이들이다. 그 외에 당굿에서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와 관련해서 특정 가문이나 당굿에서 진행되는 굿놀이 몇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산신일월 조상이 있는 경우 또는 중산간 일대의 몇 개의 당굿에서 진행되는 산신놀이는 조상신본풀이와 당신본풀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또한 토산 일뤼당과 여드렛당의 당신본풀이와 관련한 아기놀림 · 방울뿔 등의 놀이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장조사 또는 기초 자료조사를 비롯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고민은 차후로 넘기고 본고에서는 제외해서 다루고자 한다.

17) 현용준의 자료집에는 악심꽃 꺾음을 하기 전에 이공본풀이를 구송하는 것으로 되어

8	물놀이	큰곳. [도진] 앞에.	- 일만팔천신이 다시 돌아가는 길에 타고 갈 세경 말을 추심하는 과정으로, 말이 오는 과정을 보임.
9	영감놀이	죽은곳 및 당곳(영등곳). [영감놀이]에서 정태우에 이어서.	- 영감을 청하면, 영감이 노정과와 막내 동생을 찾아서 집안에 들어온 이유를 밝히고, 동생과 상봉해서 술과 음식들을 얻어먹고 떠나게 됨. 이때 영감이 갖고 갈 음식을 작은 배에 담아서 배방선을 하게 된다.
10	강태공서목시	죽은곳. [성주풀이]의 석살림에 이어서.	- 성주가 늑어가니 강태공서목시를 불러서 먹을 양식과 일천기덕(기구)을 내 놓게 한 후,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는 과정이 이어지고, 췌떡음을 통해 성주가 안착된 것을 확인함.
11	칠성새남 (허맹이 정치)	죽은곳. [칠성새남] 중에 초공맞이 · 이공맞이 · 시왕맞이 뒤에 초 · 이 · 삼대김으로 세 번 반복.	- 칠성전에 죄를 지어 아픈 사람의 병이 허맹이가 죄를 짓게 한 까닭이므로, 허맹이를 잡아서 초공맞이 뒤에 초공전에 초곰매김 · 이공맞이 뒤에 이공전에 이곰매김 · 시왕맞이 뒤에 시왕전에 삼대김을 받아서, 아픈 사람의 죄를 풀고, 그 대신 허맹이를 가다귀섬으로 귀양 보냄.
12	구삼성 냐	비념. [구삼성념]에서 할마님께 비념을 올린 뒤에.	- 할마님께 비념하며, 삼승할망본풀이를 풀어나다가 이승(생불)할망과 구삼성할망의 '굽'갈르는 대목에 이르러서 구삼성이 '굽'을 갈라 돌아가도록 함. 이때 구삼성이 조왕 · 칠성 · 성주 · 문점 · 아기구덕에 숨으려고 하지만 모두 거절하여 작별하고 떠나간다.
13	불찍앗음	비념. [불찍앗]의 허맹이 대김 받고, 터신 좌성 시킨 후에.	- 화재난 집안의 원인을 허맹이가 제공한 것이라고 하여, 허맹이를 잡아서 정치하고, 오방토신님을 좌정시키고, 불이 났던 상황을 재현하는 불찍앗음을 하면서, 헛쉬로 연기 · 불꽃 · 부정을 가시게 한다.(허맹이 정치는 칠성새남에서 허맹이 대김을 받는 과정과 같음.)

제주도 곳에서 진행되는 굿놀이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큰 곳에서 진행되는 굿놀이(1~8)와 다른 하나는 독립제 의로서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연행(9~13)되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정리된다. 이를 다시 본풀이와 연계가 있는 굿놀이와 없는 굿

있으나, 『제주도 큰곳 자료』와 2006년 9월에 현장에서 조사한 <불도맞이굿>에서는 약십몇 짝음을 한 다음에 이공본풀이를 구송하였다.

이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즉 본풀이와 연계가 있는 굿놀이로 2. 수록침, 3. 악심꽃 꺾기, 4. 꽃 타러 듭·꽃풀이, 6. 세경놀이, 7. 전상놀이, 9. 영감놀이, 11. 칠성새남(허맹이 징치), 12. 구삼싱 냐 등 들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굿놀이들(1·5·8·10¹⁸)·13)은 본풀이와 특별한 관련이 없이 독자적인 내용으로 연행된다.

굿놀이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같은 양상은 이미 앞에서 정리한 본풀이의 형태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상황이다. 즉 이들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를 구송 형태가 굿의 의례적 절차 속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것이 발견된다. 이 중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본풀이 중에서 굿놀이와 연계되는 것들은 본풀이의 연행형태 중 세 번째에 속하는 것들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미 앞의 <표 1>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형태에 속하는 본풀이 중 3.불도맛이의 이공본풀이, 4.삼공맛이의 삼공본풀이, 5·6.불도맛이의 삼승할망본풀이·마누라본풀이, 15.영감놀이의 선양참봉본풀이가 본풀이의 연행과 수레멜망 악심꽃질침·악심꽃꺾음과 구삼싱 냐, 전상놀이, 영감놀이 등의 굿놀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구송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세 번째 형태의 본풀이들이 굿놀이 연행에서 매우 중요한 연행소로 등장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계양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8) 10. 강태공서목시 놀이가 일정부분 성주풀이라고 하는 풀이와 연계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본풀이의 근거가 미약하여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실제 성주풀이곳에서 성주풀이는 성주의 근분을 풀어낸다고 말하기에는 서사가 없으므로 본풀이의 항목에 정리할 수 없고, 이에 따라서 강태공서목시가 풀이-놀이의 연계를 갖는 것으로 정리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Ⅲ. 제주도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과 유형

1.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

제주도 굿에 본풀이와 굿놀이가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연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천착하여, 풀이의 내용을 살펴서 굿놀이를 해명하는 시도가 일찍이 현용준에 의해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사례에 있어서 개수를 늘리고, 또한 본풀이와 굿놀이가 연계되는 양상이 몇 가지 유형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더욱 진전된 논의로 나아가고자 한다.

앞에서 정리한 본풀이와 굿놀이 중에서 서로 연계성을 갖고 현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실질적인 대상들을 정리해서, 이들 간의 유사성 또는 독자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상호 연계성을 갖는 것에 대한 기준은 ①실제 굿에서 연행될 때 연관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②풀이와 놀이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동일, ③풀이와 놀이의 명칭에서 같은 대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앞에서 정리한 본풀이와 굿놀이 중 서로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상호 연결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연계가 있는 제주도 본풀이와 굿놀이

본풀이	굿놀이
이공본풀이 (셋)	악심꽃 꺾음
삼승할망본풀이-생불·구삼싱 (셋)	수룩침, 꽃 타러 들·꽃풀이(〔불도맞이〕)
	구삼싱 냅
삼공본풀이 (셋)	전상놀이

세경본풀이 (첫)	세경놀이
칠성본풀이 (둘)	칠성새남(허맹이 징치)
선암참봉본풀이 (셋)	영감놀이

본풀이의 구송형태: (첫)-첫 번째, (둘)-두 번째, (셋)-세 번째.

위의 표에 따르면 앞에서 확인한 본풀이 중 이공본풀이를 비롯한 총 7가지의 본풀이가 굿놀이와 연계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8가지의 굿놀이가 본풀이와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본풀이들의 경우 앞에서 정리했던 구송형태에 있어서 세 번째인 본풀이가 의례의 한 과정이면서 동시에 의례의 근거를 제시하는 장치로서 구송되는 형태에 속하는 본풀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즉 6가지 본풀이 중 세경본풀이와 칠성본풀이를 제외한 4가지의 본풀이가 모두 여기에 속한다. 이와같이 세 번째 구송 형태를 갖는 본풀이의 다수가 굿놀이와 연계되는 것은 1차적으로 현상적인 차원에서 해명된다. 즉, 이러한 본풀이들은 연행시에 본풀이만 독립적으로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례의 일부이며, 더불어 의례의 근거를 본풀이가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의례 중에 구송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담보하고 있어서 특정 의례의 진행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러한 본풀이들은 비단 놀이뿐만 아니라 맞이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진행되는 것을 앞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풀이와 굿놀이는 대체로 1:1 대응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연계되고 있다. 연계성을 나타내는 본풀이와 굿놀이 각각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도맞이 속에서 연행되는 본풀이와 굿놀이가 많으므로 이를 통해서 연계관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불도맞이에는 하나의 맞이 의례 안에 많은 풀이와 놀이를 담고 있어서 각별한 의례라고 할 수 있

다. 실제 불도맞이의 진행은 [초감제-추물공연-수룩침(수룩침-할망다리 추깃)-삼승할망본풀이-할망질치기·다리놓기(할망질치기-삼승할망본풀이·마누라본풀이-다리놓기)-수레멜망악심질침·악심꽃 꺾음(이공본풀이-악심꽃 꺾음-새뚜림)-꽃타러 들·꽃풀이-메어들어 석살림]으로 정리될 수 있다.¹⁹⁾ 이 중에서 확인되는 본풀이인 삼승할망, 마누라, 이공본풀이는 모두 굿놀이 수룩침, 악심꽃 꺾음, 꽃 타러 들·꽃풀이와 연계된다. 뿐만 아니라 이 본풀이들 중 삼승할망·마누라본풀이는 독립된 죽은굿의 형태인 구삼성 념에서도 구송되고 있어서 제주도의 굿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이공본풀이는 불도맞이의 악심꽃 꺾음 절차와의 연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신화적 세계의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공본풀이에 할락궁이가 아버지 원강도령을 찾아갔던 신화 속의 신성한 장소인 서천꽃밭에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수레멜망악심꽃에 근거한 것이다. 본풀이에서 할락궁이의 아버지 원강도령이 어머니 원강아미의 원수를 갚으라면서 건네주었던 수레멜망악심꽃에 근거한 것이다. 이공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에 모두 등장하는 신화적 공간이 서천꽃밭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관장하는 공간이므로 불도맞이에서 함께 의례를 올리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신화 속에서 이승으로 전이된 악심꽃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이를 삼승할망의 직능을 빌어서 꺾어내는 것이 악심꽃 꺾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불도맞이에서 구송되는 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가 보이는 굿놀이인 수룩침, 꽃 타러 들·꽃풀이와의 연계양상은 이공본-악심꽃의 그것과 다르다. 즉 이공본풀이가 악심꽃의 근본을 말하는 장치로서 놀이

19)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 92~122쪽의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속에서 구송되고 있지만, 수룩침과 꽃 타러 들·꽃풀이는 본풀이와 독립적으로 놀이가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방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룩침은 신화에서 일어난 임박사의 수룩침이 현실에서 재연된 것이다. 그리고 이 재연은 신화에서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임박사의 수룩원정이 하늘 옥황에 닿아서 소원을 이루게 된 것과 같이 현실에서도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장받은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삼승할망본풀이가 꽃타러들·꽃풀이와 연계되면서 나타나는 양상 역시 수룩침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심방 또는 심방이 분해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생불할망이 변성시키고 있는 서천꽃밭에 찾아들어간다. 즉 현실과 신화적 공간이 서로 급격하게 전이되어서, 서천꽃밭이라는 신화적 공간에서 피어난 꽃이 사밭에 담겨서 현실로 옮겨져 온 것이다. 신화적 세계와 현실이 다름이 아니라, 같음에 대해서 말하기 방식이 풀이와 놀이의 연계로서 확인된다고 하겠다.

이들과 달리 구삼신 념의 절차에서 확인되는 삼승할망본풀이는 신화적 세계가 현실을 침범함으로써 생긴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상호 연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풀이와 굿놀이는 <구삼신 념>이라고 하는 좁은곳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행된다. 그 절차를 확인하면 『할마님께 비녜(공선가선-날과 국 섬김-연유담-삼승할망본풀이-이승할마님과 저승할마님이 곱갈름-구삼신 념-헛수)』로 정리된다. 여기서 본풀이와 놀이는 연계되는 질서 안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의례의 목적은 놀이에 해당하는 구삼신 념에 있고, 그 전거가 삼승할망본풀이에 있다고 하겠다. 실제 본풀이에서 확인되는 구삼신(동해요왕뜨님애기)과 생불할망(땡진국할마님)의 갈등이 신화의 서사 안에서는 온전하게 해결되어서 직능을 나누고 각자 ‘굽’갈르기를 마쳤다. 그러나 신화 속에 나타났던 신들의 갈등이 인간세계에서 그대로 발현된

것이 문제시 되어서 현실에서 집안의 아이가 아픈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삼싱 냄이라는 특별한 의례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굿놀이 구삼싱 냄과 본풀이 삼승할망·마누라본의 연계양상은 칠성본-칠성새남(허땡이 징치)와 선암참봉본풀이-영감놀이에서도 확인된다. 칠성새남과 영감놀이 역시 구삼싱 냄과 마찬가지로 인간세상에 생긴, 바꾸어 말하면 가족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화적인 발상에 기인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의례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칠성새남은 가족의 일원이 칠성이라고 불리는 뱀으로 인해서 크게 병을 앓고 있거나 탈이 나 있는 경우에 행하는 굿으로 『초감제-초상계-일월맞이-초공본풀이-초공맞이(초감제-초곱메김-이하 큰굿 초공맞이의 제차에 준함)-이공맞이(초감제-이곱메김-이하 큰굿 이공맞이의 제차에 준함)-시왕맞이(초감제-시왕맞이의 제차에 준함-삼대김)-본향두리-칠성본풀이-칠성좌정-각도비념-도진』의 절차로 진행된다. 영감놀이 역시 바다에서 일을 하다가 도채비를 본 다음에 생긴 탈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리는 굿으로 『초감제(들어가는 말미-날과국섬김-집안연유닭음-군문열림-정대우:선암참봉본풀이)-영감놀이-막뚜다사-도진(배방선)]의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만팔천신을 모시고 신의 제전을 벌이는 큰굿의 형태가 아닌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한 의례로서 굿놀이 행하고,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전거가 본풀이에서 찾아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양상에서 본풀이와 굿놀이는 인간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고서와 문제풀이 과정과 같다고 하겠다.

앞에서 확인한 풀이-놀이의 연계양상과 유달리 다른 연계양상이 세경본풀이와 세경놀이, 삼공본풀이와 전상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연계양상이 같은 것은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비해서 유달리 다른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겠다. 먼저 세경본풀이-세경놀이의 사례를 확인하면,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연행된다. 세경본풀이와 세경놀이는 여타의 풀이-굿놀이의 연계양상에서 나타나듯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오히려 제차상으로 시간적인 간극이 크다. 큰굿이 연행되는 과정을 『초감제-초신맞이-초상계-추물공연-석살림-보세감상-불도맞이...(중간 생략)...젯상계-시왕맞이-**세경본**-요왕맞이-제오상계-삼공맞이(상소록)-양궁숙임-**세경놀이**-문전본-본향드리-기도 비넵-영계 돌려 세움-군웅 만판-물놀이-도진-가수리-뒤맞이』와 같이 정리할 때²⁰⁾, 이 중 동떨어진 절차에서 연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타 풀이-놀이의 연계양상과 비견하자면, 둘은 마치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등장인물이나 상황, 또는 화소에서 직접적으로 일치하는 것 어느 것도 발견되지 않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세경’이라는 공통된 어휘로서 같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경놀이의 초입에서 상·중·하세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은 둘 사이에 분명한 연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두 풀이와 놀이는 실질적인 서사의 내용이나 상황의 관련성으로 해명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가능하다. 즉 놀이 내에서 직접적으로 본풀이의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놀이가 본풀이의 내용을 재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경본풀이의 세계와 세경놀이의 세계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경놀이는 세경본풀이의 내용은 재연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굿의 절차와 연계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본풀이는 본풀이 속의 신성한 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므로, 제오상계를 하기 그 이전에 굿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20) 현용준,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정리된 큰굿의 절차를 매우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있는 시왕맛이를 마친 후에 연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달리 세경 놀이는 전면적으로 인간세상에서 일어나는 또는 일어나야 할 일에 대해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오상계를 마친 다음에 연행된다고 하겠다. 특히 제오상계 뒤에 연행되는 양궁숙임은 신들을 위해 마련했던 당클을 모두 치우고 허물어 낸 것으로, 이미 굿을 하는 공간이 신성한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비약해서 말할 수 있다. 신의 공간에서 인간의 공간으로 돌아 온 그 시공간에서 연행되는 것은 비단 세경놀이뿐만 아니라 이후의 절차들도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인간과 매우 밀접한 신들을 이야기하고 비넌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경 놀이는 세경본풀이에서 마련한 농사신의 전거를 들어서 농사와 방목 등의 너른 땅과 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풍농 또는 풍족함의 결과를 기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실에 풍성함 그 자체를 옮겨 놓은 것으로서 연행된다고 하겠다.

세경본풀이와 놀이의 관계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신화적 발상이 현실로 옮겨져 있는 것과 달리, 삼공본풀이와 전상놀이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 삼공본풀이는 췌상계 이전에 구송하는 별도의 절차를 갖고 있다. 이때 특별한 놀이와의 연계는 보이지 않고, 제오상계를 마친 후에 별도의 삼공맛이의례 속에서 굿놀이와 연계를 보인다. 삼공맛이는 『베포도엄침-날과 국 섬김-집안 연유닭음연유문열림-삼공질침-신청례-정데우-**전상놀이**(장님들어오기-음식 얻어 못지 못한 것은 한탄함-안에서 도용칠반 받음연옛날 살아온 내력 말함**삼공본풀이**-장님 눈뜨기-자손들 돌아보기-집안 돌아보며 전상·‘스룩지우기)-전상풀림-산받아 분부사림-하스룩』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삼공맛이 역시 세경놀이-전상놀이제오상계 뒤에 연행되는 곳으로 특히 상스룩·하스룩이라는 용어에서 보듯이, 본풀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 세상에 이미 원초적으로 존재해 있는 나쁜 것들

을 몰아내고자 하는 의미에서 연행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공본-악심꽃꺾음과 유사하지만 본풀이 그 자체가 놀이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본풀이 그 자체가 놀이의 일부로서 작동하고, 놀이에서 말하는 악심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전상놀이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놀이에서 신화의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의 내력담을 풀어내게 만드는 특별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서 주목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2.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유형

지금까지 풀이-놀이가 의례에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로서 각 본풀이와 굿놀이의 연계양상은 다음 <표 4>와 같이 실제 연행의 차원에서 몇 가지 연계유형으로 다시 정리된다.

<표 4> 본풀이와 굿놀이 연계의 유형 세 가지

연계유형	본풀이와 굿놀이
가) 독립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경본풀이-세경놀이 ○ 삼승할망본풀이-수룩침, 꽃 타러 들 · 꽃풀이
나) 병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승할망본풀이-구삼성 냐 ○ 칠성본풀이-칠성새남(허맹이 징치) ○ 선양참봉본풀이-영감놀이
다) 일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공본풀이-악심꽃 꺾음 ○ 삼공본풀이-전상놀이

먼저 가)독립형은 앞의 세경본풀이-세경놀이, 삼승할망본풀이-수룩

침 등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풀이가 놀이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와 다)에서는 풀이와 놀이가 연행 되거나 놀이 안에서 풀이가 구송되 연행되거큰 차안에서 하겠다. 따라서 가)의 유형은 본풀이에서등장다. 인물되거일치다. 인물이서등장다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존재들이서등장 풀이놀이를 이끌어서간다. 세경본 풀이의 경우 ‘팽돌이’가 등장 풀이농사를 짓. 과정을 모두 반복재연놀이를 으며, 수록침에서는 삼승할망본풀이의 임박사를 연행다. 심방이, 꽃 타러 들되거꽃풀이에서도 역시 심방이 본주를 연행 풀이서천꽃-에서들 어가풀이꽃사발을 훔쳐온다. 이들은 모두 놀이에속에서 일어났거나 또 일어나기를 기대다. 긍정적일을 말한다. 그래서 단순히유형은장 없 현다. 데서 그치 연행이에아니라 꽃 타러 들되거같이 등장다세계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세경놀이와 같이 없현을 통 풀이연어진 결과물을 집안으로 들어오 연방등장다지용으로 전개된다. 즉 등들장다세상에서만 일 어날이가 구. 일, 또. 형은에속에서 약속했으나 확인놀이를싶은 성(聖)의 일을 특정한 캐릭터장 앞장세워서 알아내이를속(俗)으로서 실현다 고자 하 연방등안에서 하겠다. 차안에성(聖)책들속(俗) 놀센로 다른연행이에아니라 등들장다세계에서 일어나. 일이에또한 인간장다세계에서 일어나서 성속합일이에되기를 꿈꾸. 인간들장다염원이에투영된연행이에서 풀이가 구겠다. 특히유이러한 성속합일장다과정이에각각장다세계 관에서맞. 성격을 가진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서 대비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유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나)병렬형은 풀이가 놀이와 일정한 선후관계를 형성하면서 연행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렇게 연행되는 것들은 직접적으로 풀이와 놀이를 연계시키면서 진행됨을 앞에서 확인 했다. 특히 이 유형에 속한 놀이는 성과 속 사이에 갈등 또는 조화롭지 못한 관계에 의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다. 즉, 신화 속에서만 일어나야 할 부조화가 인간의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남으로써 문제시 된 것들이다. 앞에서 구삼싱 냄·칠성새남(허멍이 징치)·영감놀이 등은 구체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아프거나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들로, 구체적으로 삼승할망본풀이·칠성본풀이·선양참봉본풀이 등에 등장하는 사건이 비밀이 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나)유형에서 본풀이는 문제적 현실 상황의 원인이 신의 영역에 있다는 발상의 근거를 제공한다. 따라서 즉 본풀이 상에서 확인되는 부조화나 갈등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신의 영역에 있을 때는 원만한 관계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영역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야기 시킨다. 나)유형에서 심각한 문제의 발생 요인은 신화적 세계의 현실 침해 또는 현실과 신화적 세계의 불균형이다.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속을 원위치로 돌려놓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 특별한 장치가 필요했다. 그것이 바로 놀이이다. 즉 신들이 잠깐 잘못을 저질렀거나 인간에게 직접 맞닿아서는 안되는 상황을 되돌려서 원위치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아프게 하거나 목숨을 앗아가는 구삼싱, 집안에 탈을 일으키는 칠성, 밖에서 잘못 따라 들어와서 아프거나 정신을 잃게 하는 도채비 등의 존재들을 돌려보내버리는 내용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다)일체형은 놀이에 풀이가 포함되어서 진행되는 유형을 말한다.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놀이>풀이의 방식이지만, 그 실상의 관계는 풀이의 세계관에 입각한 것이다. 앞의 이공본과 삼공본과 악심꽃겨움과 전상놀이의 관계에서 확인한 것처럼 놀이 속에서는 나)유형과 비슷한 문제적 상황들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나)유형에서는 문제적 상황이 성과 속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결국 인간의 영역에 문제를 발생시킨

것과 비교할 때 다)유형의 문제는 속의 세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상황들은 특별한 문제적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일단 문제의 상황을 야기 시킨 원인인 악심꽃과 ‘스룩’의 근거가 풀이 안에 들어있다. 신화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야기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으니, 그 자체는 이미 인간으로써는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신화적 진실에 대한 인정 또는 이해를 통해서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가 다)유형에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과 속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상호공존의 방식을 풀이와 놀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연계유형들은 짧고 단순한 발상으로서 풀이와 놀이의 연계 양상이 일정한 몇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음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패턴이 실제 연행 절차상의 질서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제주도 곳곳이 신화적 세계관의 현실구현과도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하겠다. 앞에서 정리하면서 확인한 것과 같이 가)유형은 신성한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상에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성속합일의 세계관의 표방이라고 한다면, 나)유형은 신들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상호 침해되지 않으며 조화롭기를 기대하는 성속분리의 세계관을, 다)유형은 성과 속의 영역 안에서 각각의 세계를 인정함으로써 성속 상호공존을 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세 유형의 연계방식은 결국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방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고, 관계유지와 개선을 위한 누차의 다각적인 시도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세계관은 단순히 신화를 통해서 그 근본을 인간에게 전달되는 형식으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풀이와 함께 놀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이용되고 있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비속하거나 유치한 장난의 것으로 매우 초보적인 발상의 전개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풀이와 놀이의 연계양상의 유형들을 통해서 그 내면에 실질적으로 매우 복잡한 세계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놀이는 그러한 세계관의 표현방식을 매우 독자적인 형태의 대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대상들에게 신화의 세계관을 주입시킴으로서 주인공들의 행동이 곧 신의 일이며 동시에 사람의 일임을 보여주기 방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놀이는 가)에서는 신의 영역에서 명과 복을 가져오기, 나)에서는 나쁜 것을 신의 영역으로 돌려보내기, 다)에서는 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인정하기 등의 연행을 진행함으로써 풀이의 영역에 근간하면서도 연행구성소로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풀이-놀이를 매우 현상적인 연계양상에서부터 점차 정리해나감으로써 제주도 곳에 대한 깊은 곳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매우 단편적이며 범박한 정리와 분류에 근간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더욱 진전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풀이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주도 곳의 실상뿐만 아니라 곳에서 신과 인간의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영역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V. 앞으로의 과제: 풀이와 놀이 연계의 특수성과 보편성

곳에서 풀이와 놀이가 연계되는 상황이 발견되는 것은 제주도 곳의 매우 독자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곳에서 풀이와 놀이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개의 본풀이와 곳놀이가 서로 연계되면서, 특별한 곳의 절차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제주도 곳 내에서도 이러한 풀이-놀이의 연계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풀이-놀이의 연계가 제주도 곳의 연행절차와 세계관에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또 다른 구성소들의 연계인 맞이-풀이 또는 맞이-놀이는 어떠한지, 제주도 곳 내에서 실질적인 사례의 면밀한 비교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들의 비교를 통해서 서로 다른 구성소간의 연계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는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풀이-놀이의 연계가 가지는 특수성이 한 차원 더 분명해 질 수 있으며, 또한 제주도 곳의 제주도적인 특수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더불어서 제주도 내적인 과제의 하나로 당신본풀이와 조상신본풀이가 놀이와 일정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연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조사 및 연구작업이 필요하다. 조상신본풀이의 경우 현용준·진성기에 의해서 조사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이 추가로 더 발견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선학들의 조사는 본풀이 그 자체에 천착하여 정리된 결과물로서 곳의 실상을 그대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상에 대한 더욱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현장자료의 범위를 확장하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주도 지역 내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과 함께 아울러서 병행해서 연구해야 할 것이 제주도의 외부와 관련해서 비교해서 우리나라 무속의 측면에서 바라 본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서두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제주도 외에도 전국의 모든 지역의 굿에서 풀이와 놀이가 확인된다. 이 중 제주도가 가장 수적으로 우세하면서,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부분이 제주도적인 특징으로 발현되어서 풀이-놀이의 연계양상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사례는 적지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 비교검토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 본 것은 제주도 굿의 아주 짧은 꼬리의 끝만 들어서 살펴본 격과 같다. 제주도 굿의 몸체가 너무 커서 두려움에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고, 하여 말단만 들어서 말하였다. 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여기고 앞날을 기약하며 보고를 마친다.

참고 문헌

- 김영돈·현용준, 『중요무형문화재지정자료(제주도무당굿놀이)』(문화재관리국, 1965).
- 김은희, 『황해도 굿놀이 <도산말명 방아찝>굿거리 연구-박선옥 연행본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제11집(한국무속학회, 2006),273~312쪽.
- _____, “제주도 굿놀이의 특징 연구-《불도맞이》의 굿놀이 연행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무속학』제14집(한국무속학회, 2007), 197~237쪽.
- 김현선, 『삼승할망본풀이의 여신 투쟁이 지니는 신화적 의미』, 『민속학연구』제17호(국립민속박물관, 2005), 181~208쪽.
- 문무병, 『제주도 굿의 연희적 특징-굿의 전통성에 관한 일고』, 『제주도연구』6(제주도연구회, 1989), 25~45쪽.
- _____, 『제주 민속극 : 종이탈굿놀이본, 심방굿놀이본』(도서출판 각, 2003).
- 문봉순, “심방의 입무 의례 연구-〈초공본풀이〉와 신굿의 관계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수자, 『제주도 무속을 통해서 본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
- 장주근, 『제주도 무속의 도깨비신앙-탈해·처용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민속논고』(계몽사, 1986), 328~342쪽.
- _____,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역락, 2001)
- 제주도·제주전통문화연구소 편. 『제주도큰굿자료』(도서출판 각, 2001).
- 조만호, 『제주도 “무당굿놀이”의 민속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한승희, 『제주도 굿에 대한 연구-영감놀이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현용준. 『영감놀이』, 『한국의 민속예술』(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 423~428쪽.
- _____,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5(제주대학교 국어교육연구회, 1988), 7~28쪽.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집문당, 1992).

- _____, 『개정판-제주도무속자료사전』(도서출판 각, 2007).
- 현춘식, 『제주도의 민속예술』, 『제주도』76(제주도, 1979), 138~156쪽.
- 황루시, 『무당굿놀이 개관』, 『이화어문논집』3(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구소, 1980), 155~182쪽.
- _____. 『무당굿놀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7).
- 赤松智城·秋葉 隆, 『조선무속의 연구-상』(동문선, 1991).
- 『제주도무형문화재 채보·채록집』(제주도, 1995).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편』(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4).

Abstract

Connections between the Bonpuri and Nori of Jeju Island

- In the focus on the meaning of Jijang and the bird,
the character of Performing form -

Kim, Eun-Hui*

The *guts* of Jeju Island have complex and diverse formats but basically can be summarized in three components of Puri, Maji, and Nori, among which Bonpuri and Nori are performed in correlations in *gu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find their functions in *guts* by sorting out and understanding the ways they connect to each other.

The 17 Bonpuris performed on Jeju Island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ir positions and recitation styles in *guts*. The Bonpuris have three recitation formats, which include independent procedures as part of recitation formats or certain procedures, a part of formats or ceremonies with independence, and devices to provide foundations for ceremonies. The 13 Gutnoris of the island can be categorized into the ones performed in large *guts* and the ones performed in independent services with special objectives. Some of the Gutnoris are closely connected to the Bonpuris that fall into the third recitation format.

The connections between the Bonpuris and Gutnoris evolve around the connectivity between Puri and Nori in actual *guts*, the same identities of main characters in Puri and Nori, and the same names between them. Among them, seven Bonpuris and eight Gutnoris have three types of connections, which are a) independent, b) parallel, and c)

* KOREA UNIVERSITY Ph.D certificate

single body type. The independent type presents the world view of pursuing unity between the sacred and the worldly; the parallel type presents the world view of separating the sacred from the worldly, dreaming of harmony between gods and humans that do not interfere with each other; and the single body type presents the world view of seeking out coexistence of the sacred and the worldly.

Being very important components of *gut* performance, Bonpuri and Nori claim certain value as independent elements and hold a highly important place as a device to properly control the worlds of gods and humans through connections.

Key Words

Bonpuri, Gutnori, connection aspect, connerction type

교신 : 김은희 120-843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7-77
(E-mail : bongtal2@hanmail.net 전화 : 016-333-4261)

논문투고일 2009. 11. 20.

심사완료일 2010. 02. 10.

게재확정일 2010. 02. 15.